한 땀 한 땀 ‘일용할 사명’으로

(시편 20:1~9)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 땀 한 땀 '일용할 사명'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한 땀 한 땀 '일용할 사명'으로

일용할 양식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라면 일용할 사명은 하루 동안 행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일용할 사명으로서만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명에 대한 의식과 깨달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사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천되어지는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우려되는 점이 바로 사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문화가 배경이 된 삶에는 패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사명의 문화가 아닌 경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자아이를 피범벅이 될 때까지 구타해 놓고 피 냄새가 좋다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서 경쟁적 우월감과 승자의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가치 있는 사명을 수행해야 될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힘의 문제를 떠나서 의식적으로 분위기상으로도 혼자서는 타인을 그렇게 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그런 행동을 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승자라는 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서의 인간은 나의 승리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가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내놓고 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가치관과 철학이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가치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과 버려진 여인들을 끌어올리셔서 목숨 바쳐 이루신 복음의 일등 수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의 크기는 학력이나 외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 들이기에 합당한 크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러한 가치관을 잃고 완전히 경쟁문화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선민이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일용할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만이 나를 승자가 되게 하고 이웃에게 진정한 행복의 흐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은 흐름을 형성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마음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감의 터널을 통하여 흐름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율법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문자적 규칙과 원리가 되고 맙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일용할 사명을 수행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명자로 태어났기에 한 땀 한 땀 일용할 사명을 수행해가는 인생으로 채워가는 결심을 해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왕인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아람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왕인 자신을 향해 '너'라고 부름을 통해서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근본 태도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함께 왕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전쟁이 벌어지자 승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시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자기의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보내어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나라를 다스리다가 전쟁 또한 자신의 일로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앞둔 상황에 자기가 보내어졌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로부터 마음을 빼내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자기

몸을 바라보는 식으로 노래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시키는 것이 사명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객관화는 전쟁을 앞두고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 6절에 '기름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기름부음입니다. 남자가 지구상에 35억 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남편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여자에 대해 남편으로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사명자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주어지는 일들을 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기름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며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보냄을 받은 자일 뿐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좋은 성과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보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시작된 일용할 사명으로 인생이 채워져 나갈 때에, 본문을 보면 사명 수행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1~3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전쟁을 앞둔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서 기쁘고 만족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자를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사명자의 삶을 다 산 후에야 상을 주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상은 은혜 위에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내 마음이 배부른 후에야 타인을 위해 사명자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므로 높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이야 말로 경쟁의식구조에서 나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명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있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의 우주선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이 붙들 때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

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입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시온도 마찬가지로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을 염두에 두고 시온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의 우주선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늘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막을 거치지 않고 내가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른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하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내 마음이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일까요?
3절을 보면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소제는 시간을 갈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존재의 상태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존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은 곧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에 따라 존재하고, 존재가 없어지면 시간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이름을 붙들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이름, 자녀라는 이름, 승진이라는 이름을 붙잡습니다. 이름을 붙들 때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는 이유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기쁨과 만족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붙드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가지면 행복해지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붙드는 이유는 자녀에게 형통이 주어질 때에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이외의 이름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기쁨을 주리라고 믿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겠다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른 이름을 붙들었던 내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 소제와 번제 그리고 전제까지도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번제를 드릴 때에는 항상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전제는 곧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우주선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는 우주선의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3절까지의 노래는 전쟁을 앞두고 있더라도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노래가 기가 막힙니다.
4절을 보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자신을 객관화시켜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아 네가 무슨 소원을 갖든지 허락하시고, 네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에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통해 다른 이름을 붙잡았던 나를 죽이고, 소제를 통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결심하고, 전제를 통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땅을 향해 갖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올바르게 붙잡은 자가 하늘로 채워질 때에 이 땅을 향해 갖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이 뜻이 됩니다.
마음이 채워진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의 승리는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아내는 더 이상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기쁨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전달되는 대상일 뿐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데 그 핵심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한대로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진심은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리 봉사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늘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로 채워진 사람이 자녀를 대할 때에는 부모의 역할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그냥 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전반부가 채워져야만 부모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사명의 전반부를 온전히 수행해야만 후반부의 부모님에 대한 사명이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만날 때에 먼저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에 이 세상의 이름들을 붙잡았던 내가 죽는 번제의 의미가 활성화되

고, 오직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전제의 의미와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겠노라는 소제의 의미가 고백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내 마음은 하늘로 이끌려져갑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마음에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단계가 이루어지지 전에는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채우기 위한 기쁨이 되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직장이나 돈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에게 자꾸만 채워달라고 하고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니 돈도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후반부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차시면 내가 만나는 배우자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조명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나듯이, 하나님을 먹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냄새가 납니다. 즉 후반부의 사명은 5절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에도 손님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는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둔 다윗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장사에 앞서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져야만 합니다. 나의 사명은 손님 앞에서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장사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은 결코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라면 환자를 보는 이유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의사들은 생명을 고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지만 그것도 빗나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만나서 의료행위를 하는 동안에 그 환자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조명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환자의 깜깜했던 마음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비추어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판사든지 의사든지 목사든지 우리의 사명은 전반부에서 하늘로 만족하는 것이고, 후반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집약적인 성취가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축약이고 성취이며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말씀만 알면, 성경 66권을 통째로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자로 된 성경을 끼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우리 마음에 사명의 전반부가 이루어질

것이고, 사명의 전반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계획과 소원과 간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후반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다윗처럼 제3자로 내가 처한 모든 위치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전반부를 이룸으로써 신바람 나는 사명의 후반부를 통해 하나님의 조명이 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